서평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책의 내용과 구조 소개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이하 「두 대적」)은 책 자의 표지에 묘사되었듯 "신사도 운동"과 "변질된 현대신학"을 겨냥하고 있다. 저자인 김재성 교수는 목차와 서문에서 신사도 운동을 저급한 기독교 운동으로, 변질된 현대신학을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신학 운동이라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운동이 겉보기에는 상극적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성경의 절대적 교훈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고발한다. 따라서 책의 내용 역시 자연스럽게 1, 2부로 구성되는데, 제1부는 "저급한 기독교 운동"에 관한 것으로서, 소위 신사도 운동/직통 계시파/성령 운동의 계보 · 활동 · 양상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모두 8장으로 구성된 제1부의 주제/제목은 다음과 같다.

1장 신사도 운동의 핵심사상과 그 신학적인 이단성
2장 신사도 운동, 그 근원과 전개
3장 최고 예언가 폴 케인의 몰락
4장 국제기도의 집(I.H.O.P.)과 마이클 비클의 문제점
5장 비클과 직통 계시파의 문제점
6장 자칭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실상
7장 마이클 비클의 비윤리적인 언행들
8장 가짜 부흥운동의 이합집산

제2부는 전체 제목이 "고급 기독교가 무너뜨린 성경"으로 되어 있고, 모두 다섯 장(9장~1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각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송인규 2014년 8월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IVF 관련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이상 IVP), 「평신도 신학 1, 2」,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이상 홍성사), 「분별력 1, 2」, 「일반 은총과 문화적 산물」 (이상 부흥과개혁사)이 있다.

김재성 저 | 킹덤북스

9장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불신함
10장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11장 영성신학의 실상과 허상
12장 말씀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13장 현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론의 혼돈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2부의 내용이 모두 "변질된 현대신학"에 대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다소 비일관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 9장과 10장 (또 혹시 13장까지)은 전체 제목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지만, 11장의 영성신학은 그 연계성이 약하게 느껴진다. 더욱이 12장은 글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제2부 본연의 흐름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본 논평자는 이 짧은 글에서 「두 대적」 가운데 첫째 부류인 신사도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제2부의 내용은 전기했듯 다소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논평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한국 교회에 훨씬 부정적이고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 계시 식의 불건전한 경향인 고로 이 내용을 취급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두 대적」이 말하는 저급한 기독교 운동

본 논평자가 보기에 저자인 김교수는 이 책자를 통해서 신사도 운동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의 내용 설명을 시도하는 것 같다. 첫째, 이 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인물 간의 사상적 연관 관계를 밝히는 일이다. 둘째, 이 운동에 관련되는 주도적 인물들의 공통적 주장을 소개하고 동시에 이를 비판하는 일이다. 이제 이러한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제1부의 내용을 일별하도록 하자.

(i) 신사도 운동의 역사적 뿌리와 계보 형성.

이 운동의 역사적 뿌리는 19세기 성결 운동(Holiness Movement)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p. 65). 1901년 찰즈 파람(1873–1929)은 감리교 목사로서 20세기 방언 운동의 발판을 제공하고(p. 68), 흑인 목사인 윌리엄 시무어(1870–1922)를 통해 오순절 교회의 효시가 마련된다(p. 29). 이 모든 연관자들의 공통점은 데이빗 마이랜드(1858–1943)가 신학적으로 정립한(p. 66) "늦은 비" 사상 –– 20 세기의 성령 은사 운동을 지칭함 ––으로 이렇게 저렇게 엮이어 있다는 사실이다. 1930년대에 윌리엄 브래넘(1909–1965)은 초자연적 능력의 행사를 통해 늦은 비 운동을 전개했다(p. 74), 그는 천사의 나타남,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등 각종 신비적 경험을 내세우는 극단적 직통 계시의 원조가 되었다(p. 74). 1940–50년도가 늦은 비 운동의 전성기라면 1960–70년대는 카리스마 운동의 극성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존 윔버(1934–1997)의 빈야드 운동이 각광을 받게 된다 (p. 226). 이것을 눈여겨 주목한 것이 당시 풀러신학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1930–)였다 (p. 61). 와그너는 윔버에게 〈교회성장학〉 과목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지만(p. 61), 윔버는 신학적 불건전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1986년 강의 기회를 뺏긴다(p. 227). 3년 후 윔버의 빈야드 운동은 폴 케인(1929–)을 비롯한 "캔자스시티 예언자들"과 단체적 결합을 시도한다(pp. 111, 223). 그러나 이들은 불과 6년 만에 다시금 각자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pp. 111, 223).

바로 이 어간에 당시로서는 젊은 세대로서 윔버와 연대했던 마이크 비클(1955–)은 갈라서는 것을 계기로 독자적 사역을 꾀한다. 그리하여 초기 사역 단체인 〈매트로 크리스천 휄로우십〉을 거쳐 1999년에는 〈국제 기도의 집〉(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을 설립했고(p. 111),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피터 와그너는 2000년도부터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들을 임명하고, 사도들의 연합회를 결성함으로써 (p. 23) 소위 "신사도"라는 용어를 활성화했다. 그러나 비클과 바그너의 관계는 과거와 달리 매우 소원해져 있다(p. 62).

(ii) 주도적 인물들의 공통적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논평자는 이제 신사도 운동에 연관된 인물들 가운데 네 명 –– 존 윔버, 피터 와그너, 폴 케인, 마이크 비클 –– 을 추려서, 이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네 인물은 각각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최고로 존경 받던 예언자, 기도의 집을 통한 예언 사역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가르침에는 네 가지 정도의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무엇이 그런 공통점인가?

첫째, 이들은 모두 현 시대가 하나님께서 의미 심장하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때임을 천명하고 있다. 윔버의 빈야드 운동은 부분적으로 "늦은 비"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pp. 60, 112). 와그너는 2001년을 제 2의 사도 시대라고 주장했다(p. 24). 케인은 25년 만에 재등장하면서(1987년) 자신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pp. 108, 116). 비클 역시 현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끊임 없이 강조하고 있고(pp. 130, 131), 또 늦은 비 운동의 핵심적 가르침을 수용하고 있다(pp. 155–157).

둘째,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 신비적 역사를 표준적인 것으로 가르친다. 윔버는 "표적과 기사" 및 "예언"을 빈야드 운동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pp. 60–61). 와그너가 윔버의 능력 종교를 지지하고, 또 소위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을 내세우는 것(pp. 28–34)도 이런 까닭이다. 케인은 오순절 은사파와 성령 운동 및 빈야드 운동의 관련자들이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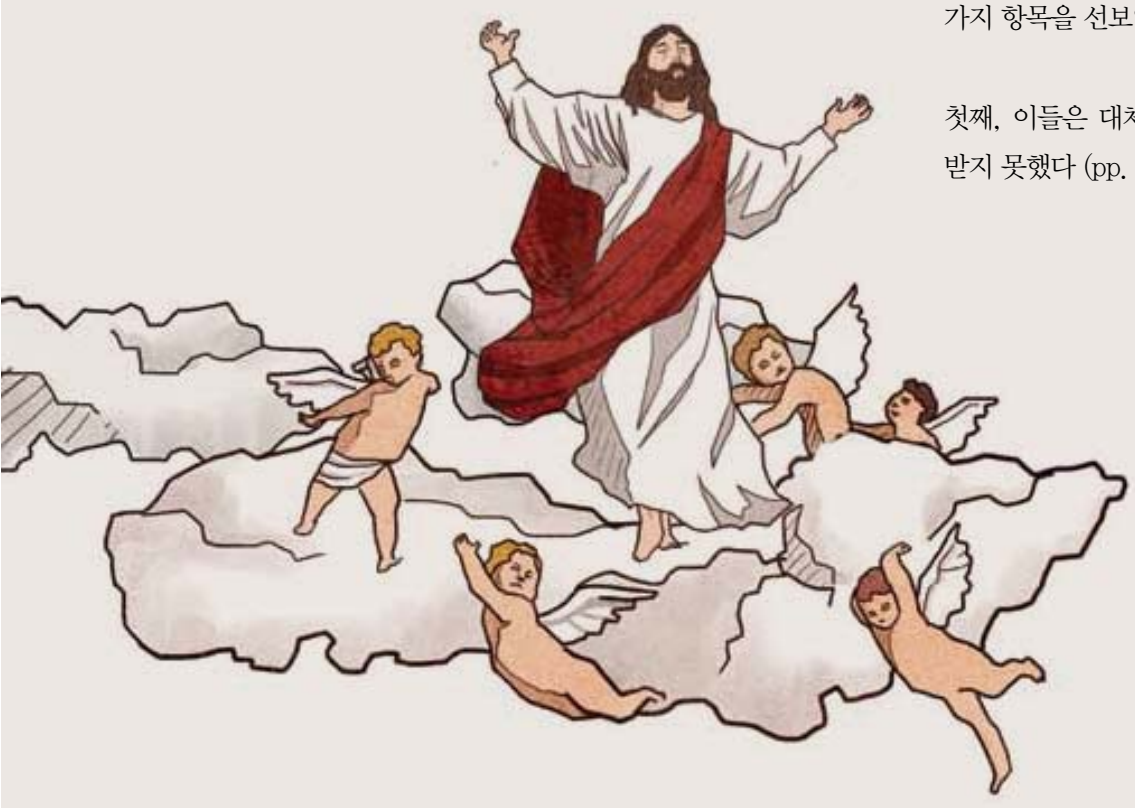
고라고 추앙할 정도로 불건전한 은사 운동의 경력이 화려하다(pp. 96–97, 99). 비클이 주도하는 〈국제 기도의 집〉 또한 치유 · 예언 · 기이한 현상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pp. 122, 126).

셋째, 이들은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덧붙인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이다. 윔버는 예언 · 능력 치유 · 기적적 은사 등의 가르침에 있어서 비판을 받았다(pp. 60, 226–229). 와그너는 "신사도"라는 개념의 발의에 있어서나(pp. 23–24), 영적 전쟁과 관련하여 과도한 주장(pp. 25–26)을 서슴지 않았다. 케인은 여러 가지 해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pp. 99–102), 요엘서 2:5–7에 대한 희한한 해석을 시도했다(p. 112). 비클은 비성경적 예언 사역에 더해 "신부," "다윗," "세례 요한," "장막" 등에 대해 풍유적 해석을 일삼고 있다(pp. 130, 132–133).

넷째,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특한 일군으로 지목되었음을 스스로(혹은 다른 이의 예언에 의거해) 내세운다. 윔버는 풀러 신학원에서 퇴거한 후 케인이 자신에게 해준 예언 –– 윔버가 마지막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은 여전히 번창하리라는 것 –– 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p. 110). 와그너는 2001년에 스스로를 신사도라 칭했다(p. 23). 케인은 천사의 방문이나 주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부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pp. 98, 99, 101, 104–105). 비클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반자로 초대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p. 167), 또 밥 존스라는 인물이 자신에 대해 "특별한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p. 170)를 내세우기도 한다.

또 저자는 신사도 운동과 연관된 네 명(및 그 이외의 동조자들)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논평자는 그 가운데 다섯 가지 항목을 선보일 것이다.

첫째, 이들은 대체로 정규적 신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 (pp. 88, 166, 168–169).



둘째, 이들은 무리한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힌다 (pp. 22–24, 26, 30–39, 42–50, 65–68, 79–84, 124–125, 130–141, 146–157, 178–180, 182–187).

셋째, 이들은 신앙 생활의 표준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두지 않고 개인의 주관적 체험을 더 앞세운다 (pp. 21, 28, 32, 35, 42–43, 44–48, 60, 68–70, 74, 88–90, 97–105, 141–145, 164–170, 214–215, 234–237, 240).

넷째, 이들이 발한 예언상의 오류가 수두룩하다 (pp. 107–108, 122, 192–201, 212).

다섯째, 이들은 종종 윤리적 비행을 저지른다 (pp. 89, 96, 100, 104–105, 113–117, 204–218, 239–240).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논평자는 이 글의 마지막 분단에서 한국 교회를 풍미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신사도 운동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것은 저자의 책에 대한 논평이 아니고 이 주제와 관련한 일종의 제언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기적적 은사에 그렇게 "목을 매는" 것일까? 논평자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상(非常)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당연시하는 문화권에서 자라났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에는 축지법 · 장풍 · 각종 권법 등과 더불어 무림 고수들의 비술 등이 있고, 우리의 뇌리에는 귀신 · 선인 · 신선 등이 어우러지는 기묘한 광경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천지 융합적 세계관에 노출된 이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표준시하고 동경한다.

둘째, 이러한 동경 심리는 무교적 종교관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나 신기하고 비(非)일상적인 특수 현상을 "영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다"든지 "지옥을 다녀 왔다"든지 희한한 경험에 접하면 그대로 빨려 들어간다. 게다가 복음서를 보면 어떤 면에서 기적 투성이인데 영적 사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도 모른다.

셋째, 개인에 따라 질병 · 고난 등 극한적 상황에 처했다가 기도 응답이나 초자연적 경험을 통해 구조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은 자신이 겪은 사건의 과정과 패턴을 신앙의 표준으로 상정하고 늘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또 이런 이들의 간증을 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심리 상태를 형성한다.

넷째, 잘 고쳐지지 않는 성적 습관 · 중독 증상 · 마니아적 폐습에 빠져 있다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은사를 통해 해방을 맛보는 이들도 생긴다. 이런 이들 가운데 과거 성령에 대해 들어 보지도 못한 전통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수록 더욱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은사에 집착하게 마련이다.

다섯째, 목회자들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목회적 한계에 부딪혔다가 "성령"을 강조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경우가 있다. 이후 이들의 목회 방침은 크게 선회하여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중에는 정말 그런 식의 성령 역사를 믿고 추구하는 이도 있고, 일부의 경우 목회자 자신은 꼭 그렇게 믿지 않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 실용적으로 그런 성령론적 전략을 채택하는 수도 있다.

이제 지경을 넓혀 전세계적 상황을 고려해 보자.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공동체

에서도 성령의 기적적 · 초자연적 역사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의 침묵(silence of God) --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신약 성경 및 초대 교회 때와 달리 기적/비상 섭리를 베푸시지 않는 것, 또는 유대인의 집단 학살처럼 큰 단위의 비극이나 고난 현장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 에 의문이나 회의를 느끼다가 기적적 개입을 갈망하는 쪽으로 신학적 급선회를 시도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안 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신론이나 불가지론 쪽으로 치닫기도 하는데, 차마 그런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선교지의 어려움과 오랫동안의 영적 불모 상태를 타개해 나갈 수단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것은 특히 복음에 대해 거부 경향이 심한 지역 -- 힌두교, 모슬렘, 불교 등 저항 지역(resistant area) -- 의 사역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지역의 현상을 신학적 표준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최근 10-15년 사이 북아프리카 지방 모슬렘 사이에서는 꿈 · 기적 등을 통해 집단 회심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태를 신학적 표준으로 삼는 이들은 자연히 초자연적 성령 역사가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불건전한 성령 운동에 호기심을 보이거나 그런 운동으로 전향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가? 네 가지 항목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사도 운동이나 직통 계시 현상과 관련하여 회자되는 몇 가지 용어나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흔한 예로서 "성령의 역사", "계시", "초자연적 현상", "초자연적 은사", "하나님의 음성" 등이 있다. 이런 용어나 표현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설명 · 대화 · 논평에 임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이 된다.

둘째, 비판만을 능사로 삼지 말고 우리 편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기서 유념할 바는 서구 기독교 정통 신학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독특한 환경과 상황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구의 그리스도인과 달리 무교적 기질이 깊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초자연적 · 기적적 현상을 선호하는 쪽으로 향하곤 한다. 따라서 꿈 · 환상 · 입신 · 접신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만의 신학적 성찰 가운데 풀어내는 지혜와 탄력성이 요구된다. 이런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한국적 대안 제시는 말로만 끝나기가 쉬울 것이다.

셋째, 둘째 항목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주의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성령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주, 성령을 앎,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조명,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등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가 성경적 · 신학적 · 한국적 맥락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검증 · 분석 ·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예언이든 치유든 꿈의 해석이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느 면에서 진실이며, 어떤 점에서 사단의 역사이고 어떤 점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밝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빈번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교수의 「두 대적」--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사도 운동 -- 은 언뜻 보기보다 많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